Passio Domini nostri Jesu Christi

- □□

정보

개요
곡명: Passio Domini nostri Jesu Christi secundum Joannem
작곡가: Arvo Pärt(아르보 패르트, 1935년생)
텍스트: 라틴어 Vulgate 요한복음 18장 1절 ~19장 30절과 전례적 서두 ·결말
작곡 시기: 1982년 완성 (이후 수정본 존재)
초연: 1982년 11월 27일, 뮌헨 Lukaskirche. Bavarian Radio 위촉, Gordon Kember 지휘
성격: 요한 수난사 본문을 틴티나불리 (tintinnabuli) 양식으로 설정한 대규모 성악 ·기악 작품이다.

아르보 패르트의 《 Passio Domini nostri Jesu Christi secundum Joannem》은 요한복음의 체포부터
예수의 죽음까지를 라틴어로 전달하는 수난곡이다 . 작품은 Exordium, 이어지는 수난 서사, Conclusio가 연결되는 큰 틀을 이루며, 복음사가 4성부 ·예수 ·빌라도 ·혼성합창과 오르간 및 네 기악 성부의 관계가 긴 시간을 조직한다.

출판과 판본

Universal Edition이 악보를 출판했으며 , 카탈로그는 1982년 작품과 75분의 연주 시간을 제시한다. Philharmonie de Paris 자료는 1982년 작곡 뒤 몇 년 후 수정된 작품으로 설명한다. 자료에 따라 세 부분 또는 네 개의 연결된 부분으로 나뉘어 소개되므로 , 여기서는 고정된 악장 수보다 서두 ·본문 ·결말의 연결을
중심으로 살핀다.

소요 시간

출판사 표기는 75분이다. ECM의 Hilliard Ensemble 음반에 수록된 전곡은 1시간 10분 52초이므로, 판본과 연주에 따라 전체 길이는 대체로 약 70~75분으로 볼 수 있다.

편성

독창은 예수 (Christus, 바리톤), 빌라도 (Pilatus, 테너), 복음사가 4중창 (소프라노 ·알토 또는 카운터테너 ·테너 · 베이스)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혼성합창 SATB, 오르간, 오보에, 바순, 바이올린, 첼로가 더해진다.

복음사가 4성부와 바이올린 ·오보에 ·첼로 ·바순은 장면에 따라 서로 짝을 이루거나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예수와 빌라도는 각각 오르간과 결합해 복음사가의 음향과 구별되는 성부 영역을 만든다. 혼성합창은 군중과 하인, 대제사장 등 집단 발화를 담당한다.

라틴어 본문과 형식

작품의 중심 텍스트는 요한복음 Vulgate의 18장 1절부터 19장 30절까지다. 체포, 베드로의 부인, 빌라도의 심문, 십자가형, 예수의 죽음이 성서 본문의 순서를 따라 이어진다.

Exordium

짧은 합창 서두가 수난 본문에 들어가기 위한 전례적 문맥을 마련한다. 이 부분은 독립적인 장면을 길게 전개하기보다 , 앞으로 이어질 낭송의 시간과 음향을 열어 준다.

요한복음 수난 서사

복음사가 4중창이 사건을 순서대로 전달하고, 네 기악 성부가 그 말과 나란히 움직이거나 잠시 물러난다. 예수의 말은 바리톤, 빌라도의 말은 테너가 맡으며 두 성부 모두 오르간과 함께 놓인다. 베드로 ·하인 ·대제사장 · 군중의 말은 혼성합창의 짧은 응답과 외침으로 나타난다.

이 배치는 오페라처럼 인물의 심리를 확장하기보다 , 인물과 집단의 발화를 본문 안에서 분리해 들려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건의 속도는 극적인 아리아나 장면 전환보다 문장 순서, 음절의 길이, 성부가 들어오고
빠지는 시점에서 형성된다.

Conclusio

본문 뒤에는 마지막 기도인 Conclusio가 놓인다. 합창과 오르간이 긴 수난 서사를 전례적 틀 안에서 정리하며, 새 사건을 추가하기보다 본문을 마친 뒤의 시간을 확장해 작품을 닫는다.

배역이 만드는 음향 영역

복음사가의 네 성부와 네 악기는 서사의 지속을 담당하는 중심 층을 이룬다. 예수와 빌라도는 오르간과 결합한 독립된 음향으로 나타나므로 , 같은 라틴어 본문 안에서도 배역별 무게와 위치가 달라진다. 합창은 대규모 군중 장면을 계속 유지하기보다 필요한 순간에 집단의 말을 짧게 제시한다.

Dunedin Consort의 프로그램 노트는 복음사가와 기악 4중주의 영역을 Aeolian 또는 Hypodorian 성격으로, 군중 합창을 E장조 화음으로 설명한다. 이 대비는 작품의 음향 영역을 파악하는 참고 틀이며, 모든 구간이
하나의 조성에 고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Tintinnabuli와 시간의 조직
패르트의 틴티나불리 양식에서는 한 성부가 음계를 따라 움직이는 선율을 만들고, 다른 성부가 삼화음의
음들을 규칙에 따라 배치한다. 《 Passio》에서는 이 두 작동 방식이 라틴어 음절과 결합한다. 쉼표와 마침표, 콜론에 맞춰 음가가 늘어나고 침묵이 길어지면서 , 성서 문장의 구문이 곧 음악의 시간이 된다.

이 양식은 종소리를 흉내 내는 효과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다. 제한된 음역, 반복되는 성부 관계, 오르간의 개입, 성악과 기악의 교대가 함께 작동해 약 70분의 지속을 만든다. 음악적 변화는 큰 극적 굴곡보다 작은 음역

이동과 성부 조합의 차이로 드러난다.

Philharmonie de Paris와 Dunedin Consort 자료는 이 작품을 바흐 수난곡 전통과 대화하는 현대적 응답으로 설명한다. 다만 바흐의 아리아와 코랄을 그대로 계승하는 형식은 아니며, 복음서 본문을 의식적이고 연속적인 낭송으로 세우는 데 중심이 있다.

녹음 자료와 수용

ECM New Series의 Hilliard Ensemble 녹음은 1988년 3월 런던 St. Jude's on the Hill에서 녹음되어 같은
해 10월 3일 발매되었다 . 참여 성악진과 기악진은 초연진과 다르며, 음반에 수록된 전곡의 실제 재생 시간은 1 시간 10분 52초다. 이 자료는 작품의 초기 유통 경로와 연주 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주요 자료

Arvo Pärt Centre 연대표
Universal Edition 작품 카탈로그
ECM Records, Passio / The Hilliard Ensemble
Philharmonie de Paris 프로그램 노트
Dunedin Consort 프로그램 PDF
Bayerischer Rundfunk 합창단 작품 안내